

#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2.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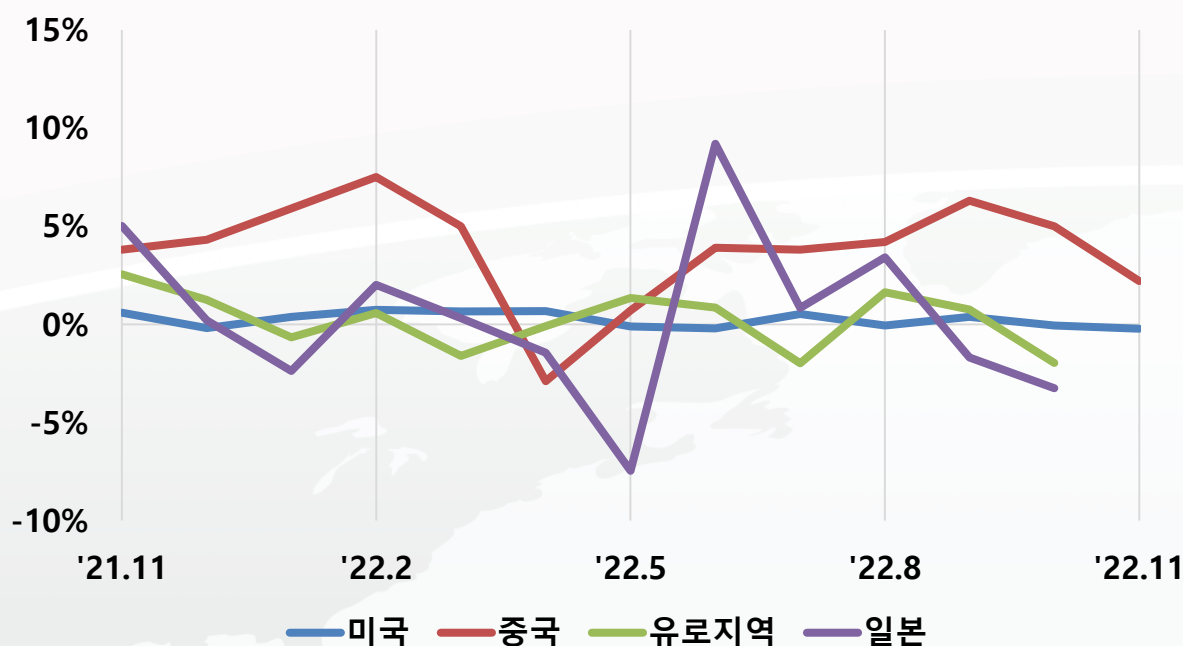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# 세계 경제동향

## ■ 주요국 경제동향 : 글로벌 경제 둔화 심화, 미 물가상승 압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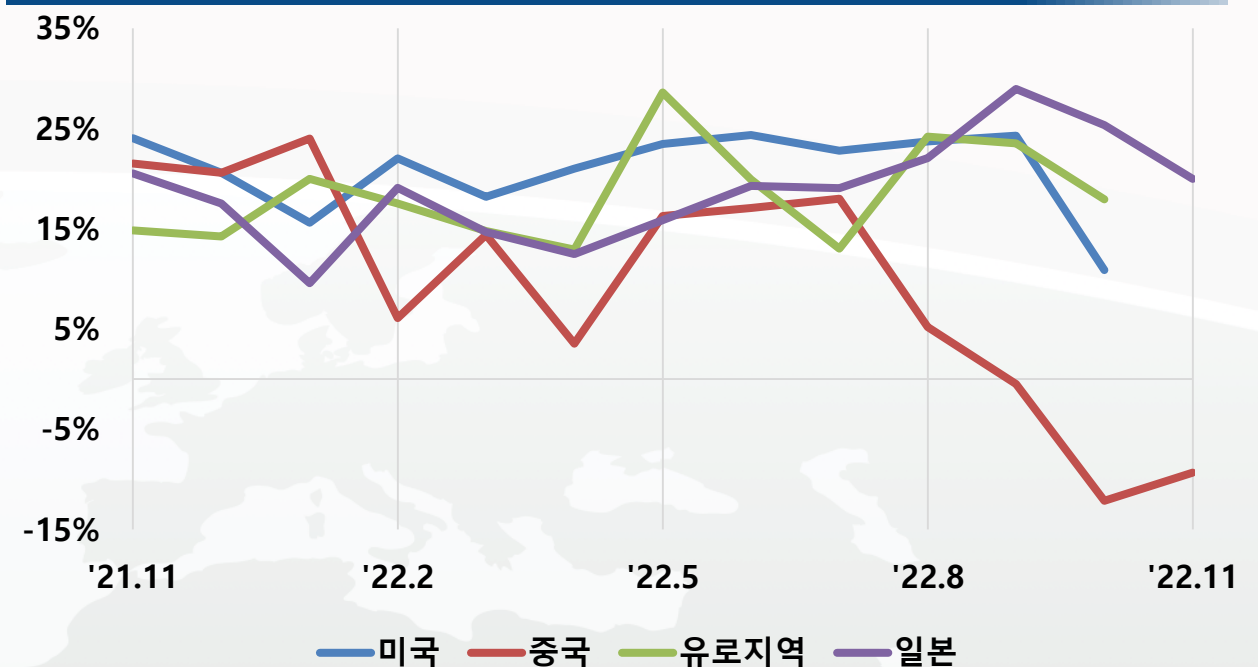
- **(미국)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및 산업생산 부진, 고용시장은 견조세 유지**
  - 11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.2%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위축, 11월 실업률 3.7%로 전월과 동일, 비농업부문 취업자 26.3만명 증가
 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 대비 +7.1%로 전월(+7.7%) 및 예상치(+7.3%) 하회,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6.0%
- **(중국) 11월 봉쇄 지역 확대로 생산 및 소비 부진 지속, 대외여건 악화 및 생산 차질로 수출 감소**
  -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2.2%(전년동월 대비)로 하락하고, 소매판매은 전년동월 대비 5.9%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세 확대
  - 1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.3%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역성장, PMI 지수(47.1)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(50) 하회
- **(유로존) 생산 및 소비 위축 지속,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폭 하락**
  - 10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2.0% 감소, 소매판매 1.8% 감소 등 러·우 전쟁 및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하락세 심화
  -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+10.0%로 전월대비 하락했으나 두 자릿대의 상승률 유지
- **(일본) 생산 및 소비 부진 확대, 소비자 물가 상승세 유지**
  - 10월 산업생산(전기 대비 △3.2%) 2개월 연속 감소, 소매판매 증가율(+0.2%) 하락, 소비자물가 상승률 +3.7%로 상승폭 확대

### 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Bloomberg

### 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  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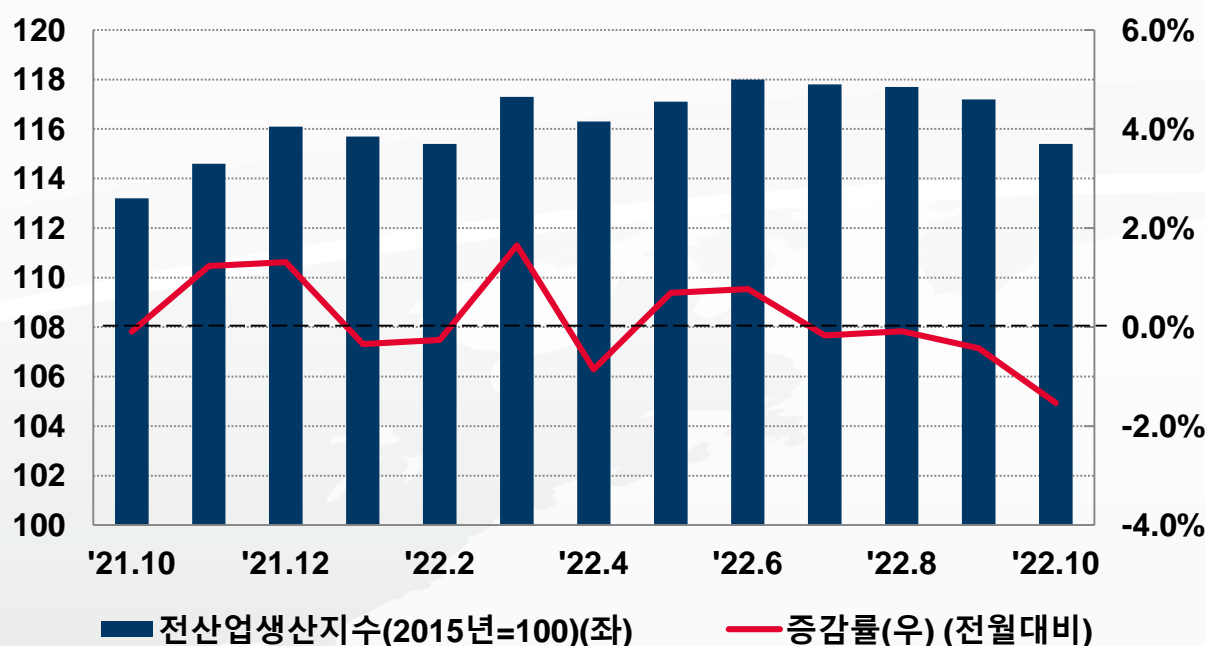
## ■ 산업 활동 :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감소, 경기 선행종합지수도 하락

- (생산)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.5% 감소
  - (광공업 :  $\Delta 3.5\%$ ) : 기타운송장비(+5.5%) 등에서 늘었으나, 자동차( $\Delta 7.3\%$ ), 기계장비( $\Delta 7.9\%$ ) 등에서 감소
  - (서비스업 :  $\Delta 0.8\%$ ) : 보건·사회복지(+0.3%) 등에서 늘었으나, 금융·보험( $\Delta 1.4\%$ ), 정보통신( $\Delta 2.2\%$ ) 등에서 감소
- (경기) 10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9.2p)는 건설수주액, 코스피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.1P 하락 (기준치 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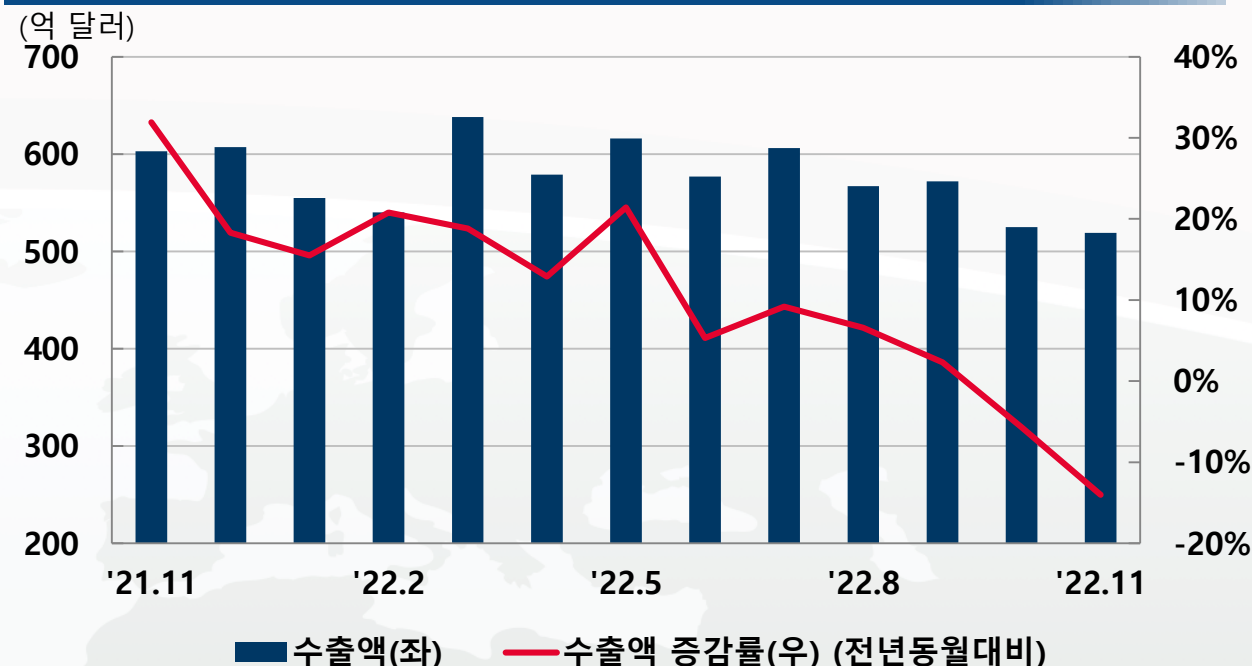
## ■ 수출 동향 : 글로벌 경기 둔화, 중국 성장 부진 등으로 수출 감소 전환

- 11월 총수출은 519.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 $\Delta 14.0\%$ ),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( $\Delta 70.1$ 억 달러) 적자 지속
  - 미국·중동·EU 수출은 증가,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중국( $\Delta 25.5\%$ ), 아세안( $\Delta 13.9\%$ ), 일본( $\Delta 17.8\%$ ) 등은 감소
  - 자동차(+31.0%), 석유제품(+26.0%) 등은 증가 지속, 반도체 가격 하락 및 경기 둔화로 반도체( $\Delta 29.8\%$ ), 석유화학( $\Delta 26.5\%$ ) 등은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수출 추이



#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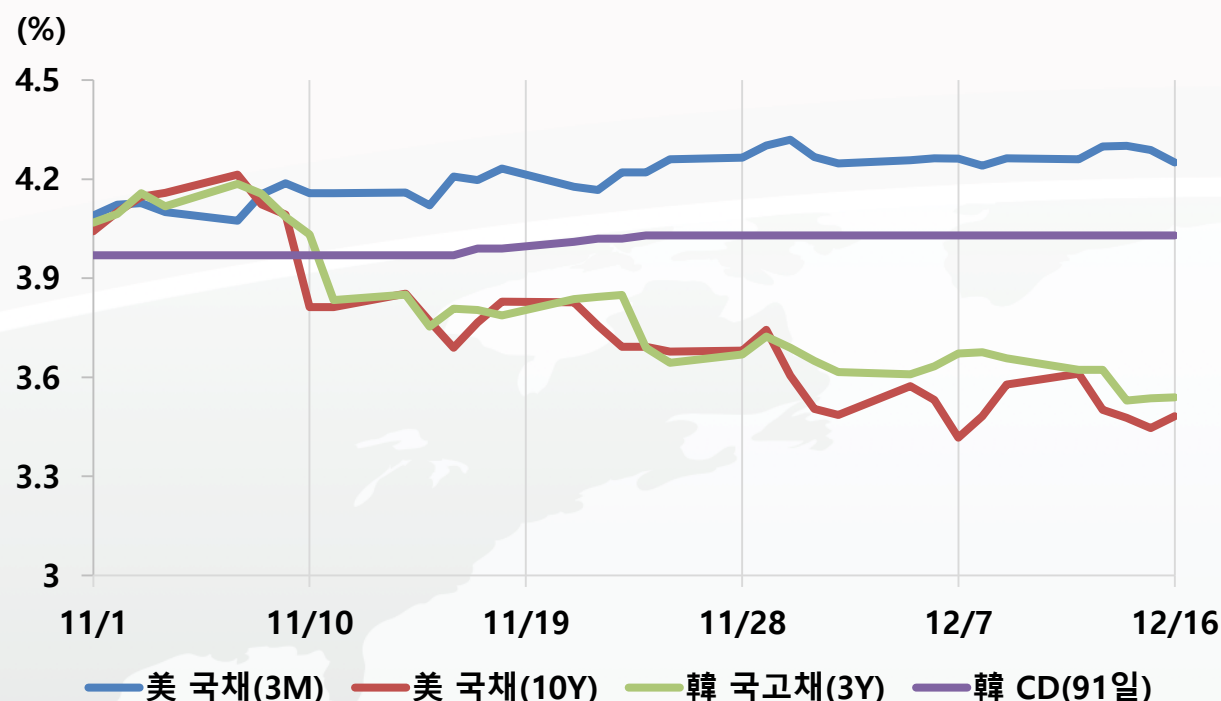
## ■ 금리 :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, 경기둔화세 등으로 장기물 금리 하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큰 폭 하락 및 경기지표의 부진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3.4%(12.7)를 기록한 이후 미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'23년중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로 소폭 반등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 금리 하락,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3.5%(12.14)로 하락, 단기물(CD91물)은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4.0%대로 소폭 상승

## ■ 환율 : 원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약세 전환 및 일본은행의 정책기조 변화로 급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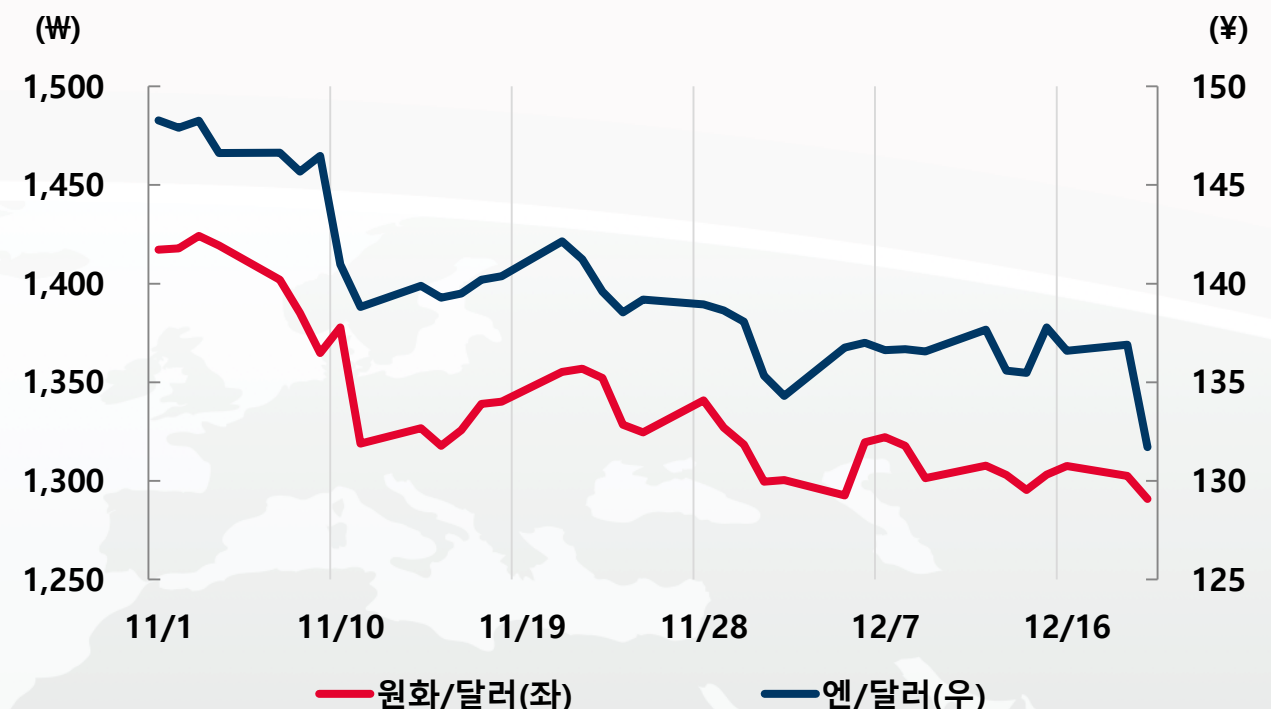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11월초 미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1,319원/달러(11.11) 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1,300~1,350원/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다 엔화강세의 영향을 1,290원/달러대로 하락
- (엔/달러 환율) 11월중 미금리 하락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 및 일본정부의 시장 개입,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등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으로 135엔/달러 이하로 급락(132엔/달러, 12.20)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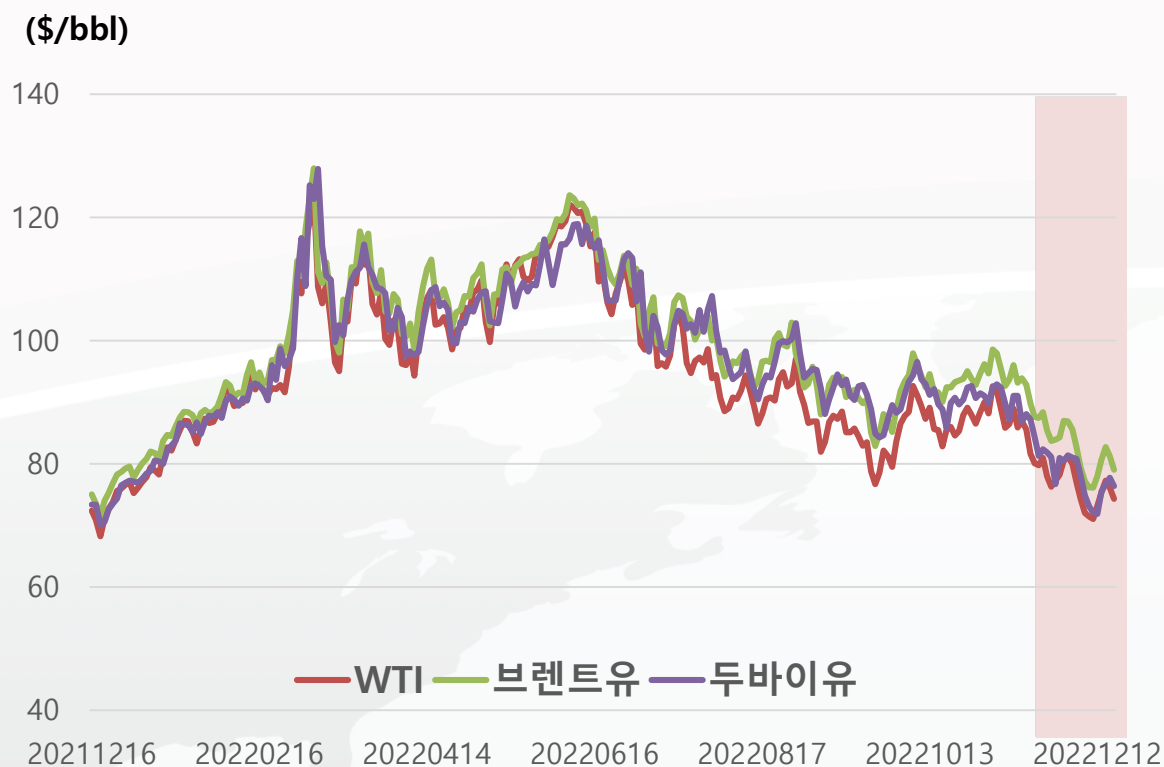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#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## ■ 유가는 경기침체 우려 지속으로 하락, 천연가스 가격은 EU의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로 하락

- (원유) 미국 경제지표 부진,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 확대로 유가 하락, 12월 중순 배럴당 76달러 수준(12.16, 두바이유 \$76.4/bbl)으로 9월말 이후 최저치 기록
  - 미국의 11월 생산 및 소매판매 전월대비 감소,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 하락 등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미달러화 약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확대
- (천연가스) 12월중 미국 동절기 수요 증가 전망, EU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부진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mmBtu당 7달러대에 육박했으나, 가격상한제 합의 도출로 5달러 수준(12.20)으로 급락
  - 미국의 재고 및 천연가스 광구수 감소와 낮은 기온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기대 확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, EU가 가스 가격상한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급락세로 반전

### 국제유가 추이



###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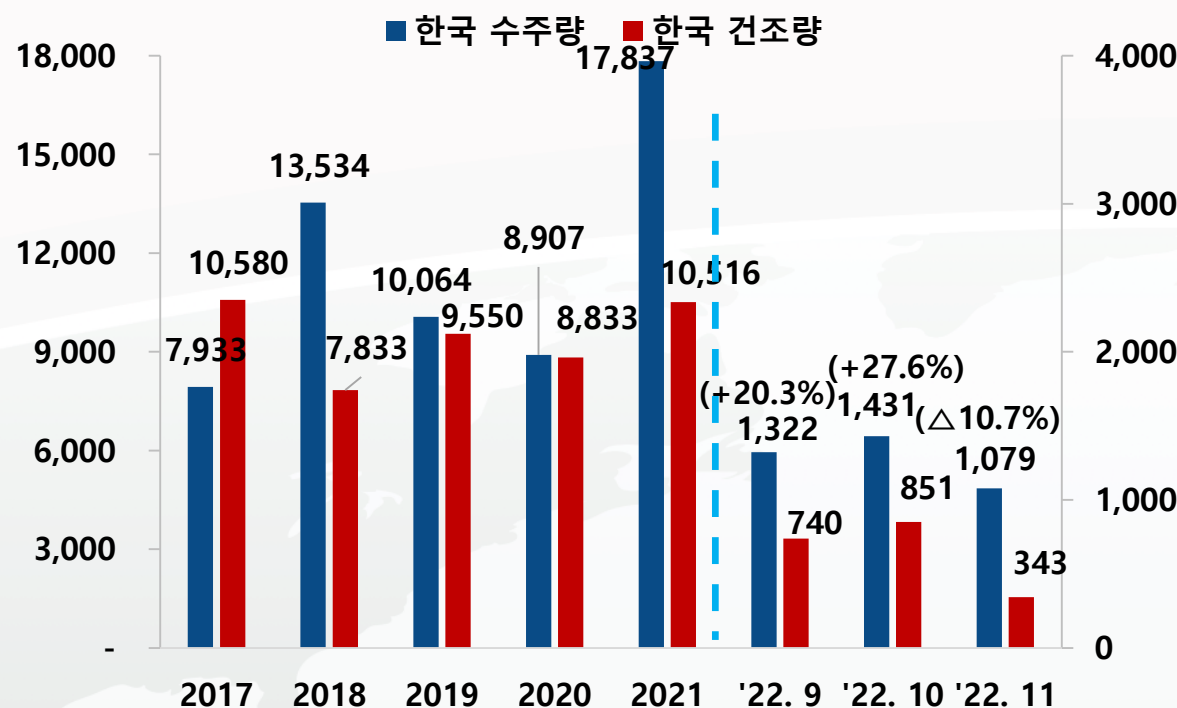


## ■ 11월 세계 발주량은 다소 부진했으나, 한국 수주량은 비교적 양호

- 11월, 세계 신조선 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300만CGT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부진한 수준
  - 11월 세계발주량은 286만CGT(전년동월 대비 +9.1%), 11월 누적 발주량은 3,911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23.3%)
  - 11월 한국 수주량은 108만CGT(전년동월 대비 △10.7 %), 누적 수주량은 1,575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8.7%)
  - 11월 한국 수주액은 28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5.6 %), 누적 수주액은 418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2.9%)
  - 11월에는 벌크선, 탱커 등 발주 선종이 점차 다양화 되며 중국이 54.5%의 높은 점유율 기록
  - 11월 한국 수주는 LPG선과 탱커 등으로 다소 다양화 되었으나 여전히 LNG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
- 11월 선박 수출은 일감 부족으로 전월에 이어 부진한 실적 지속
  - 11월 수출액은 11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68.2%), 11월 누적치는 127.9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26.8%)
  - '20년 수주 부진의 여파로 일감 부족이 지속되는 양상

###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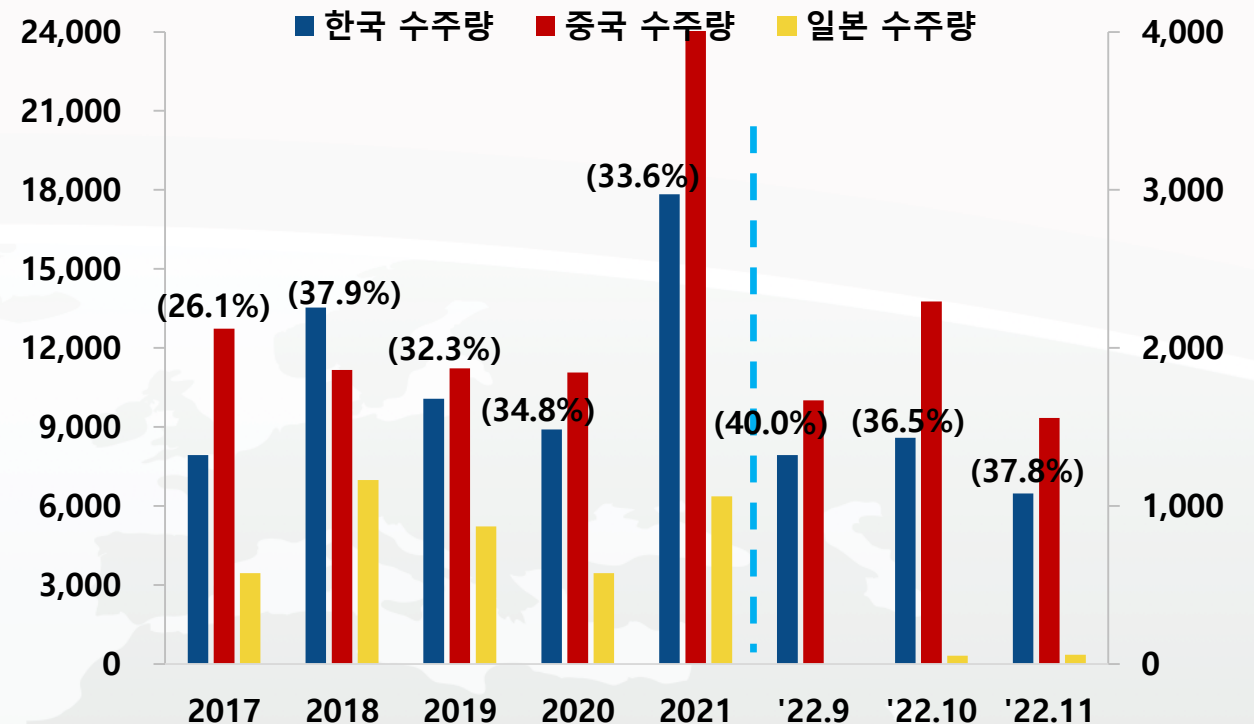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### 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자료 : Clark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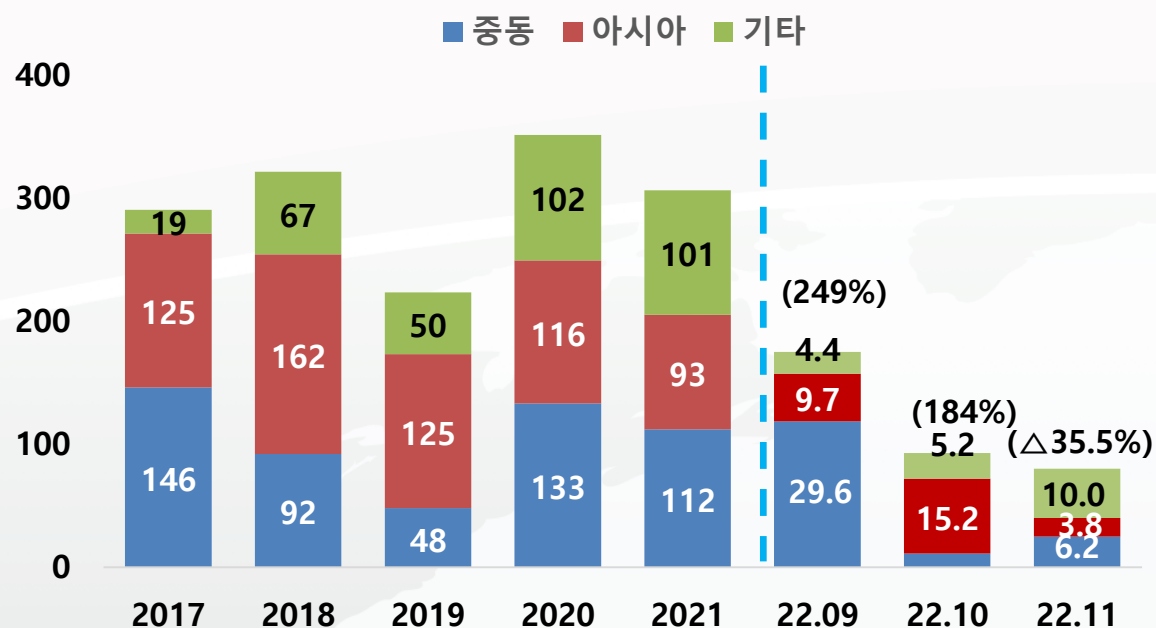


## ■ 11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35.5% 감소한 20.0억 달러

- (지역별) 11월 수주액은 중동 6.2억 달러, 아시아 3.8억 달러, 북미 5.8억 달러, 아프리카 1.8억 달러 순
  - 디엘이엔씨는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USGC-2 고밀도폴리에틸렌 EPC를 수주했으며,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를 3.8억 달러에 수주
- (공종별) 플랜트 11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169%), 토목 1.4억 달러(△94.1%), 건축 3.3억 달러(△74.6%) 기록
- 11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5.6% 증가한 268억 달러이며, 아시아 수주가 110억 달러로 전체의 41%를 차지하고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0.7% 증가
  - 글로벌 금리인상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,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올해 수주 예상치 32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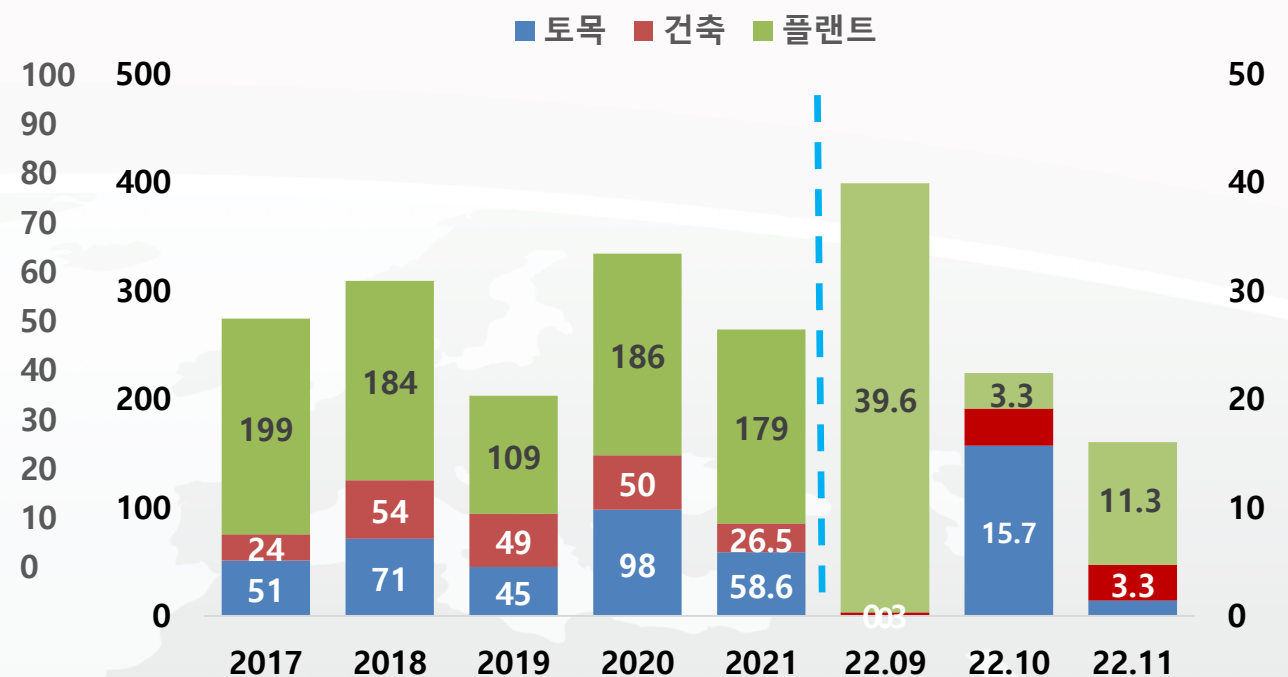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  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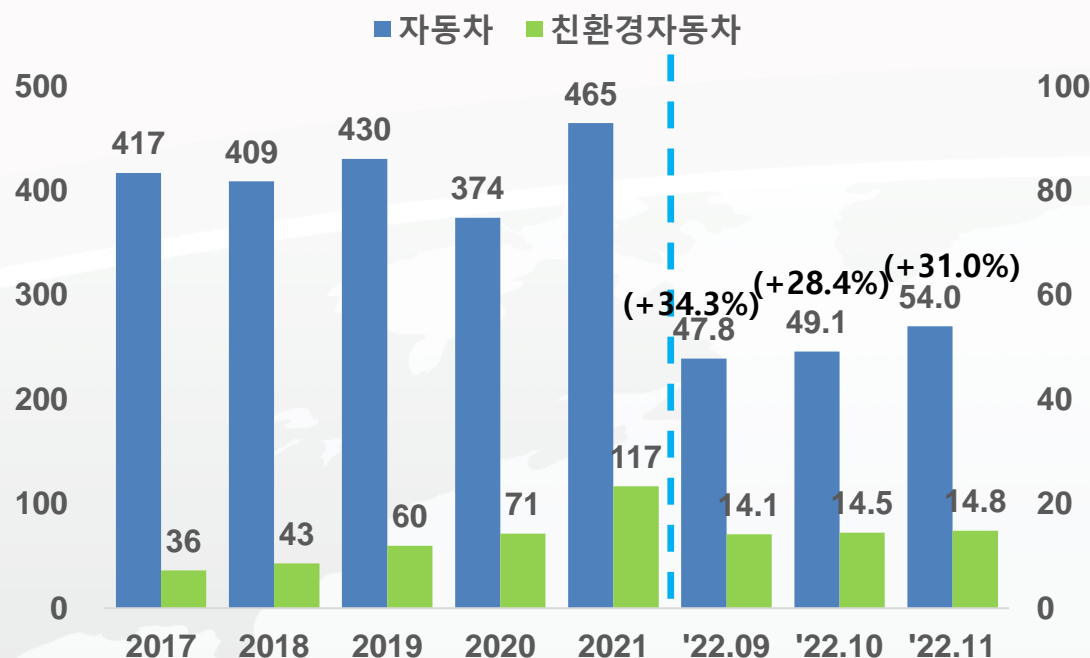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## 1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54.0억 달러, 18.6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1.0% 증가한 54.0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20.3% 증가한 14.8억 달러 기록
  - 반도체 공급난 개선에 따른 생산량 확대로 자동차 수출 대수는 25.0%, 수출액은 31.0% 증가하며 월 최고 실적 달성
  -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수출호조로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.3% 증가한 14.8억 달러로 월 최고 실적 달성
  - \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1년 11월) 30.0% → ('22년 09월) 29.6% → ('22년 10월) 29.4% → ('22년 11월) 27.5%
  - \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2년 11월 대수 기준) : 하이브리드(48.1%), 전기차(44.6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7.2%), 수소전기차(0.1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.8% 증가한 18.6억 달러
  - 자동차 부품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0.8% 증가
  - \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2년 11월) : 북미(32.3%), 아시아(28.0%), 유럽(22.2%), 중남미(13.5%), 중동(3.3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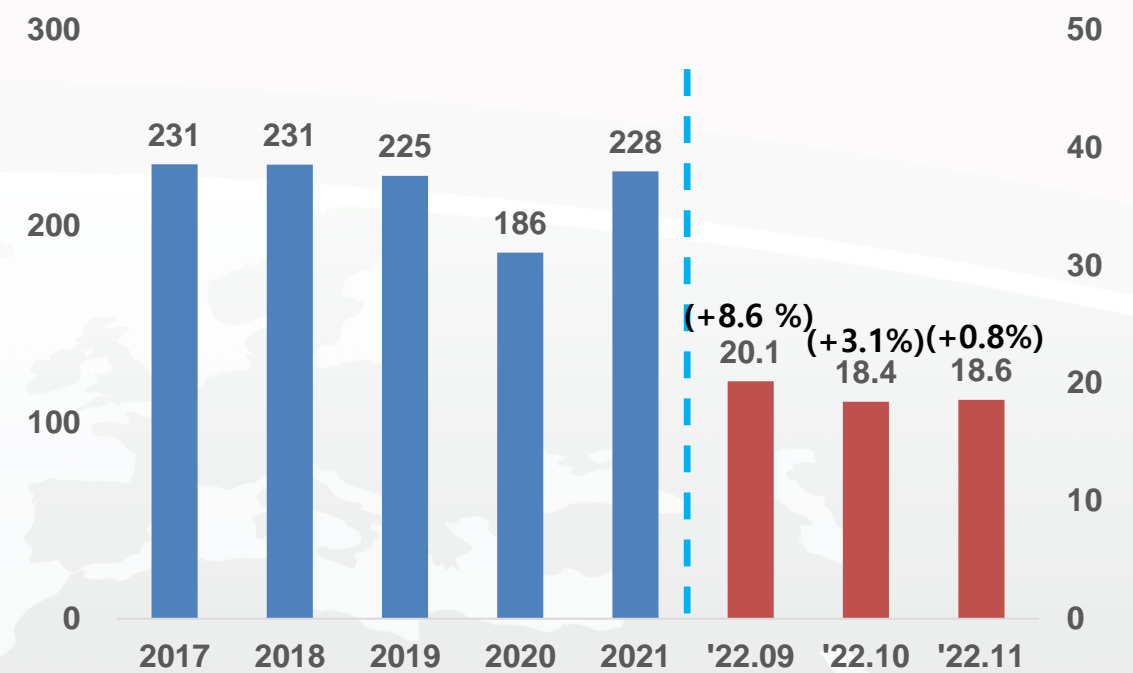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무역협회



# 반도체·디스플레이

## ■ 11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28.4%, △17.3% 기록

### 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.4% 감소한 86.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, D램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9.7% 감소한 38.4억 달러 기록

\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1.10~12)3.71 → ('22.1~4)3.41 → (5~6)3.35 → (8~9)2.85 → (10~11)2.21(△40%, 전년동월비) (트렌드포스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.8% 증가한 42.5억 달러 기록하며 메모리반도체 수출을 추월

\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 증가한 32.5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% 감소한 9.3억 달러 기록

\*\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)87.9 → ('22.1)89.0 → (4)89.9 → (7)91.2 → (8)90.7 → (10)96.8 → (11)90.4 (한국은행)

### 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7.3% 감소한 20.1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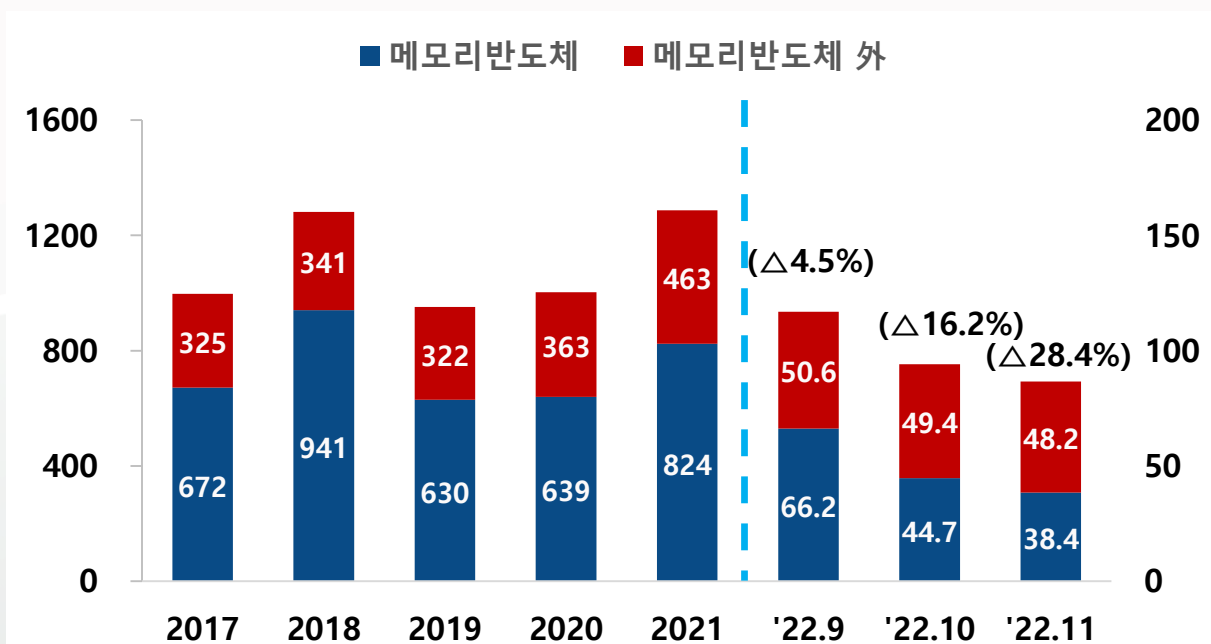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.6% 감소한 14.1억 달러 기록

\* OLED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1)50.2 → ('22.1)50.6 → (4)52.1 → (7)53.9 → (8)54.4 → (9)55.6 → (10)57.0 → (11)54.6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구조조정,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3.5% 감소한 3.6억 달러 기록

### 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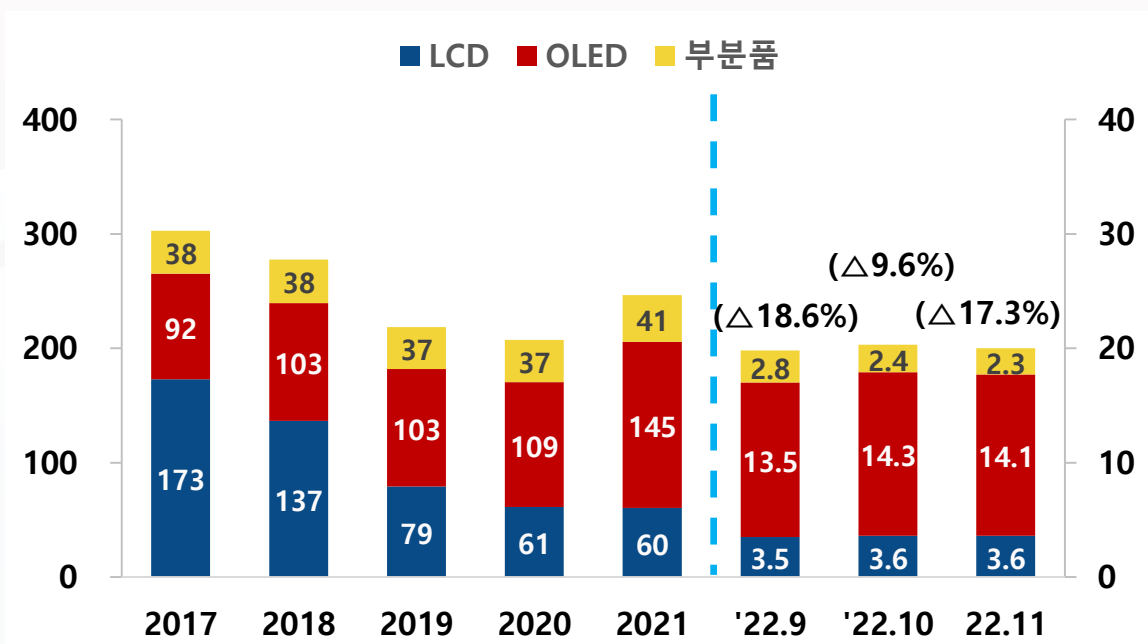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### 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## ■ 11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.2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28.5% 감소

### •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 수출 감소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6.2% 감소한 13.8억 달러 기록

- (완제품)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ICT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(△ 34.5%)한 2.8억 달러 기록

\*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수요는 비교적 견조: 오스트리아(0.55억 달러, 전년동월 대비 +99.4%), 캐나다(0.39억 달러, +486.5%)

- (부분품) 중국의 카메라 모듈 등 휴대폰 부분품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5.5% 증가한 11억 달러 기록

\*최근 對중국 카메라 모듈 수출액 추이: 1.6억 달러(7월) → 5.3억 달러(8월) → 7.4억 달러(9월) → 8.7억 달러(10월) → 7.6억 달러(11월)

### • 통신장비\* 수출은 글로벌 ICT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28.5% 감소한 1.9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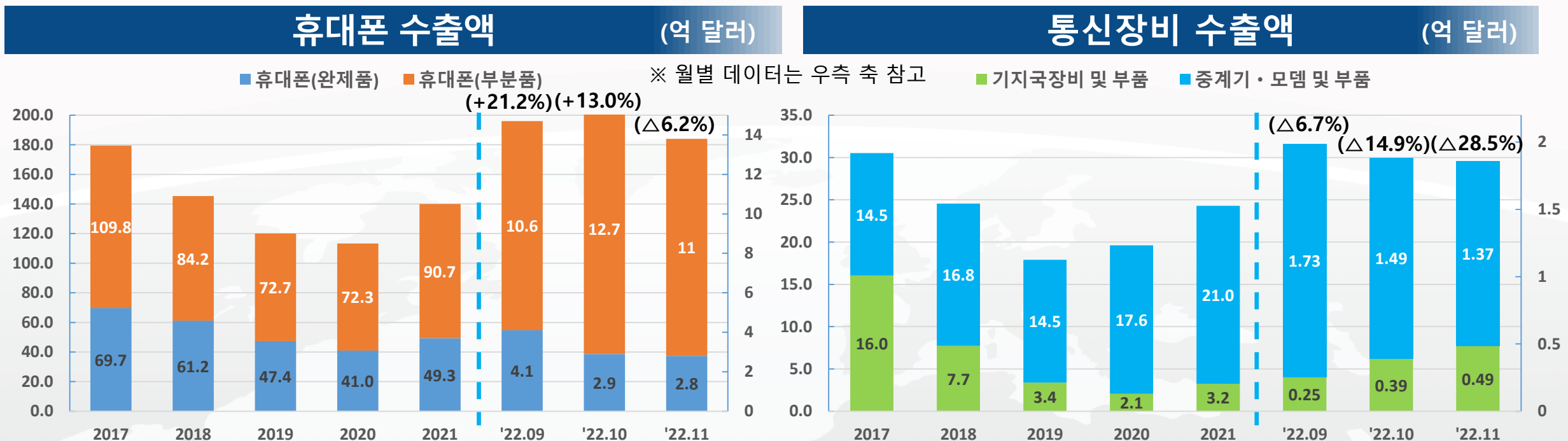
\*12월부터 통신장비 부분품(HS 8517792000, 8517793000)을 추가하여 집계

- (기지국 장비) 기지국 장비 수출은 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 대비 21.7% 감소한 0.49억 달러 기록

\*최근 3개월 기지국 장비 부품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: 9월(0.24억 달러 +135.8%), 10월 (0.38억 달러, +14.3%), 11월 (0.47억 달러, △21.1%)

- (중계기·모뎀) 중계기·모뎀 수출은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(△44.5%)하며 전년동월 대비 30.6% 감소한 1.37억 달러 기록

\*권역별 중계기·모뎀 부품 수출액(11월) : 아시아(0.34억 달러, 전년동월 대비 △49.5%), 북미(0.22억 달러, △27.5%), 유럽(0.20억 달러, △32.4%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